

신태용 “이동국, 이제 놔줘야 할 시기”

이동국(전북)이 대표팀 재등장에 실패했다.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은 “이제는 놔줘야 할 시기”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신태용 감독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동국에 대해 “K리그 영웅을 아름답게 보내줘야 한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오는 11월10일 콜롬비아와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격돌한 뒤 14일 울산문수축구장에서 세르비아와 만난다. 경기 시작 시간은 오후 8시다.

이날 공개된 23명의 선수 중 이동국의 이름은 없었다. 이상적인 작별의 일화라는 것이 신태용 감독의 설명이다.

“이동국이 원 강원FC전과 어제 우승을 확정하는 경기를 직접 봤다. 이동국이 골도 넣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신태용 감독은 “예를 들어 2년 전 홈 경기처럼 (이동국이) 좋은 찬스에서 골을 못 넣으면 여론의 못매를 맞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아름답게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명단 배제에는 한국나이로 곧 마흔이 되는 이동국이 내년 러시아월드컵까지 기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깔려있다. 신태용 감독은 “이동국이 러시아월드컵까지 골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앞에서 뛰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 이제는 놔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한편 신태용 감독은 “11월에는 감독 부임 후 최정에 멤버로 임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것은 인정하고, (상대할) 두 팀 모두 월드컵에 나오는 팀이니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시험해야한다. 홈에서 하는 경기이니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선수단은 다음달 6일 수원 라마다호텔에 소집돼 같은 날 오후 5시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첫 훈련을 실시한다. 다음은 신태용 감독 일문일담.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이 30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콜롬비아, 세르비아와의 평가전에 나설 축구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부임 후 최정에 멤버…홈경기 열심히 준비”

“경쟁력 있는지 시험해야”…내달 6일 첫 훈련

▶선수 선발 배경은.

“11월에는 감독 부임 후 최정에 멤버로 임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것은 인정하고 (콜롬비아, 세르비아) 두 팀 다 월드컵에 나오는 팀이니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시험해야한다. 홈에서 하는 경기이니 열심히 준비하겠다.”

▶최정에 멤버라고 언급했는데, 김신욱·이정용 등은 이제 기회가 없는건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이청용과 김신욱은 언제든 컨디션과 몸이 올라오면 합류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정성현이 최초 발탁인데.

“정성현은 리우올림픽에 같이 갔다. 그 선수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 스톱패이지만 발드업도 잘하고, 짧아서 파이팅도 좋다. 수비에 파이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발탁했다.”

▶유럽 원정에서 변형 스리백에 실패했는데 앞으로도 사용하나.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월드컵에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변형 스리백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 유럽 2연전에서 실패했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선수단이 아니었다. 양쪽 풀백 자원이 부족했다. 내가 생각하는 선수들이 구축되면 포백과 변형 스리백을 같이 공유해야한다. 변형 스리백 카드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상대에 따라 꼭 필요한 전술이다.”

▶이정철 재발탁 배경은.

“2015년 아시안컵에 갔을 때 같이 해봤다. 장단점을 알고 있다. 이정철은 앞에서 많이 뛰고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간다. 우리가 상대보다 강하다고 볼 수 없다. 1선, 2선에서 강하게 해줘야 3선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요즘 골맛도 보고 있어서 꼭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당해도 좋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나.

“러시아에서 돌아온 뒤 이야기했듯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분명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한다. 내가 갖고 있는 색깔을 확실히 입힐 시간이 없다. 콜롬비아, 세르비아는 월드컵에 진출한 팀이다. 지금은 부족한 점이 보인다. 그래도 지금 당하는 것이 좋다. 지금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손흥민에게 최전방을 맡기는 방안도 고려중인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투톱으로 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도 두 경기를 TV 중계로 보면서 많은 힌트를 얻었다. 받쳐주는 선수가 누가 있느냐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이다.”

▶이동국은 떨어졌고, 염기훈은 선발됐는데.

“이동국의 강원전과 어제 우승 확정 경기를 직접 봤다. 이동국이 골도 넣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동국은 200골을 넣은 K리그 영웅이다. 아름답게 보내줘야 한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예를 들어 2년 전 홈경기처럼 좋은 찬스에서 골을 못 넣으면 여론의 못매를 맞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아름답게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동국이 내년 월드컵까지는 골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앞에서 뛰어줄 수 있을지에 의문이 생겨 이제는 놓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적인 생각이다. 예를 들어 2년 전 홈경기처럼 좋은 찬스에서 골을 못 넣으면 여론의 못매를 맞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아름답게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동국이 내년 월드컵까지는 골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앞에서 뛰어줄 수 있을지에 의문이 생겨 이제는 놓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격수가 계속 바뀌는데.

“10월에는 K리그와 상생의 길로 가기 위해 바꿨다. 사실이 명단에 황희찬이 들어와야 하는데 부상이 길어지고 있다. 팀에서 선수를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뽑지 못했다. 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팀에서 부탁했다.”

▶이제부터는 월드컵 멤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는 좀 더 강해져야 한다. 선수들도 강해져야 하지만 나도 강해져야 한다. 우리가 몸을 아끼지 않고 정신적으로 투혼을 발휘해야 할 것 같다. 실력이 안 되면 한 발 더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미드필드 중앙 자원이 많이 추가됐다.

“이청민과 주세종은 많이 편다. 역습 나갈 때 장점이 있다. 이명주는 앞에서 찰라주는 패스와 골 결정력이 좋다. 이번 기회에 한 번 평가를 해보고 싶었다.”

▶새롭게 보여줄 전술이 있다.

“특별한 것은 없다. 이제는 조직력을 맞춰야 한다. 처음 부임할 때는 경기력보다는 무조건 월드컵에 진출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유럽 원정은 반쪽 선수단으로 가서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다.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수 손발을 맞춰 조직력을 다듬어야 한다.”

▶11월 외국인 코치 합류는 없나.

“아마 11월부터 합류할 것이다. 계약이 성사단계에 있다. 최종 사인만 남았다. 이르면 다음 주에 입국할 것이다. 두 분이 월드컵과 유

로대회를 두 번이나 나갔다. 우승 경험도 있다.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소속팀과 대표팀에서의 포지션이 다른 선수들이 있는데.

“대표급 선수는 어느 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지철은 공격형, 수비형도 될 수 있다. 우리 팀에 소집됐을 때 그날 컨디션 등에 따라 포지션은 조금 바뀔 수 있다.”

▶준비도 중요하지만 경기력도 보여줘야 할텐데.

“우리나라 축구 수준이 세계 최정상급은 아니다. 희망을 볼 수 있는 경기력을 만들어야 한다. 힘들었던 월드컵 진출을 이뤄냈으니 좀 더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임한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번 멤버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자신이 있다. 과거 박지성처럼 손흥민에게 주장을 맡길 수도 있나.

“우리 팀이 더 좋아진다면 손흥민이 아니라 박지성에게도 주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가 어느 선에서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한다. 소집 기간이 길지 않기에 획기적으로 바뀌진 않겠지만, 이제는 좋아질 모습이 무엇인지 스스로 느껴야한다. 대표팀에 3~4일 동안 모여 확실력이 좋아질 수는 없다. 이제는 어느 팀과 불타고 쉽게 지지 않는 모습으로 대한민국 축구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팀을 만들려고 한다.”

▶측면보다 중앙 자원이 많이 보이는데.

“포백과 스리백을 공존하기 위해서 뽑았다. 1선에 있는 공격수들이 사이드 원어보다는 이때까지 볼 수 있는 선수를 뽑았다. 위에서 뛰어줘야 수비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콜롬비아와 세르비아는 월드컵에 진출한 팀이고, 우리가 월드컵에서 상대할 수 있는 팀들이다. 우리가 원하는 색깔의 축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해볼 것이다.”

이동국 “올 시즌 끝나고 은퇴할 수도”

“내년엔 내가 운동장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 갖고 있어”

내년에는 그라운드에서 라이언 킹(이동국(전북))의 모습을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전북 현대의 우승을 이끈 이동국이 직접 밝힌 이야기다.

이동국은 2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36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전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에는 내가 운동장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승 확정과 200호골로 최고의 하루를 보낸 이동국은 내년 시즌 계약 이야기가 나오자 사뭇 차분해졌다.

이동국은 “항상 이번 경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뛰었다. 확실히 답을 내리긴 어렵다. 아직 내년은 내에겐 멀리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동국은 이어 “내가 오래 뛰면 한국축구 미래가 어둡다는 이야기도 들려. 빨리 은퇴를 해야할까라는 생각도 했다. 올해 은퇴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시즌이 끝난 뒤 (거취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그만큼 이동국에게 2017시즌은 쉽지 않았다. 누구와 경쟁해도 이겨낼 수 없다는 자신감은 여전했지만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이끌어내야 하는 팀 사정상 예년에 비해 출전 시간이 현저히 줄었다.

이동국은 “출전 시간 확보가 안 돼 조금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여름이 오기 전에는 올해가 내 마지막 시즌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야기를 할까, ‘잠을 깨’를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이동국은 “후회없이 보여준 뒤 여름이 지나 내 입장을 밝히겠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다. 결과적으로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고 골도 많이 넣어 우승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이동국은 후반 33분 깔끔한 헤딩슛으로 K리그 최초 200골 고지를 밟았다. 전북은 제주를 3-0으로 꺾



29일 오후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36라운드 전북현대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 전북은 제주에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동국이 우승 메달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고 통산 5번째 우승을 확정했다.

이동국은 “우승할 때마다 쉬운 적은 없었다. 올해 조기에 확정을 지었지만 고비를 잘 넘겼기에 두 경기를 앞두고 우승할 수 있었다. K리그에 만만한 팀이 한 팀도 없었다”고 밝혔다.

200번째 골을 넣은 뒤 이동국은 유니폼을 벗어 팬들을 향해 자신의 이름을 들어 보였다.

이동국은 세리모에 대해 “200년 입단 후 팬들이 열정적인 지지를 해주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 팬들에게 내 이름을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고 싶었다.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뒤에서 항상 응원해주는 팬들이 있어서 힘이 됐다.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메시와 호날두가 (상의탈의 세리모를) 할 때는 약간 건방져 보였다. 오늘 컨셉은 그것이었다. 골 넣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났다. 경고 한 장을 받더라도 한국에서 첫 번째 있는 기록이기에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웃었다.

뉴스



월드골프챔피언십(WGC) HSBC 챔피언스에서 8타 차 역전 우승을 차지한 저스틴 로즈.

WGC 역전드라마 쓴 로즈 세계랭킹 13위→6위 경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특급 대회에서 8타 차 역전 우승을 거둔 저스틴 로즈(잉글랜드)가 세계랭킹 '톱10'에 진입했다.

30일(한국시간) 발표된 남자골프 세계랭킹에 따르면 로즈는 지난주 13위에서 7계단 올라선 6위를 차지했다.

로즈는 지난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WGC HSBC 챔피언스에서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에 뒤집기에 성공하며 정상에 올랐다. 2016 리우올림픽 남자골프 금메달리스트인 로즈는 2015년 '취리히클래식' 이후 2년 만에 PGA 투어에서 우승했다.

세계랭킹 1위부터 5위까지 변동이 없는 가운데 통산 8승째를 거둔 로즈는 13위에서 6위까지 랭킹을 끌어 올렸다.

총격의 역전 우승을 내준 존슨(11,879점)이 1위를 굳건히 했다. 조던 스피스(미국·9,998점)가 2위, 저스틴 토마스(미국·9,159)는 3위를 지켰다. 피스피카 히데키(일본·8,546점)와 존 램(스페인·7,626점)이 4, 5위를 유지했다.

HSBC 챔피언스에서 존슨과 공동 2위를 차지한 브룩스 캠퍼(미국)는 1위에서 7위로 상승했다. 공동 2위를 형성했던 헨리 스탠슨(스웨덴)도 9위에서 8위로 한계단 올라갔다.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6위에서 9위로 리키 파울러(미국)도 7위에서 10위로 3계단 하락했다.

박성현, LPGA 사임다비 공동 5위

우승자 크리스티 커 통산 20승...전인지·김세영 공동 9위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왕 확정자 박성현(24)이 사임다비 말레이시아(총상금 180만달러)에서 공동 5위에 오르며 시즌 9번째로 톱10 진입에 성공했다.

박성현은 2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TPC 쿠알라룸푸르(파 71, 6246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8개,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로 4언더파를 쳐 최종 합계 13언더파 27타를 쳤다.

15언더파를 친 우승자 크리스티 커(미국)에 2타 뒤진 공동 5위다.

공동 6위로 4라운드를 맞은 초반 3번과 4번홀에서 연속으로 한 타씩 잃어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5번홀에서 버디로 분위기를 바꿨고 7번

부터 10번까지 네 홀 연속으로 버디를 쳤다.

11번홀에서 더블보기를 범한 뒤에도 12번, 16번, 마지막 18번홀에서 한 타씩 줄였다.

전인지(23)와 김세영(24)은 나란히 12언더파와 27타로 공동 9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인 역대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은 다음으로 미쳤다. 한국 선수들은 올해 15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1승만 더 거두면 한 시즌 최다 16승을 달성한다.

남은 대회는 3개다.



한편, 올해 3월 롯데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커는 시즌 2승 통산 20승째를 신고했다.

뉴스